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종단 관심·지원 필요”

제43차 포교정책연찬회 열려

불교의 미래를 좌우할 인재불사이지만 대표적인 포교사 각지대로 불리는 어린이·청소년 포교. 조계종 포교원은 이를 활성화하기 2008년부터 ‘불교어린이청소년 지도사’ 자격고시 제도를 신설해 종단 차원의 전문가 육성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도사 제도에 대한 미흡한 관심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포교원 포교연구실은 ‘불교 어린이·청소년 지도사 육성 및 활동방안’을 주제로 한 제43차 포교정책연찬회를 지난 23일 서울 법륜사 대웅전에서 열어 개선책을 논의했다.

불교어린이지도사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한 김광호 대한불교교사 대학 부학장은 불교어린이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필요성을 어린이법회 현장의 지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어린이지도사의 자격요건 강화와 처우 신장에 종단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호 부학장은 “불교어린이지도사의 비율이 전국 사찰 어린이법회 지도자 수의 5.37%에 지나지

인식이 낮고 지도내용이 부재한 청소년지도사 제도에 대한 종단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조한곤 사무국장은 “가족의 양육 및 교육기능 약화,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 위해요인 증가 등 급변하는 청소년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청소년포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소년포교의 질을 담보할 불교청소년지도사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지도사의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히 정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연수, 포상제도를 실시해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동기부여 및 신심고취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봉선사 교무국장 지환스님, 수원사 어린이청소년법회 담당 정국스님, 서운주 영전사 연화어린이회 지도교사, 이대성 삼선포교원 총괄간사 등 어린이·청소년 포교현장 활동가들도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개진했다.

포교연구실장 정호스님은 “어린이·청소년 지도사의 육성을 위해 자격고시를 시행하고 각종 연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포교원과 지도사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포교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도사의 전문적인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교원, 자격고시·연수 진행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 통해 특수성 고려한 활동 지원할 것”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어린이법회 지도자들은 불교어린이지도사와 같은 종단의 자격증이 없어도 활동하는 데 아무런 지장도 해택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교 어린이지도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어린이법회 지도자 채용요건을 불교어린이지도사 등 종단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는 시책이 필요하다”며 “각 현장의 지도사와 활동가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불교청소년지도사 제도에 대해 발표한 조한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사무국장 역시 종단 내외의

2011 신춘문에 공모 11월15일~12월15일 www.ibulgy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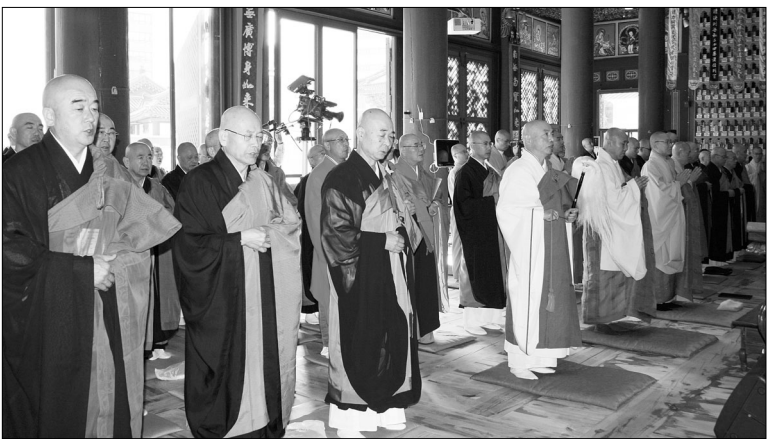


日 ‘33관음성지 순례단’ 600명 방한

문화사업단·관광공사 ‘새로운 불교문화교류’ 추진

일본 조동종 스님과 신도 600여 명이 한국을 방문해 사찰문화를 체험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스님)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창)는 지난 26일 서울 조계사에서 일본 조동종 스님과 신도 등 6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한일합동평화기원법회’를 봉행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신라호텔에서 ‘문화교류 리셉션’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33관음성지순례사업의 성공을 기원하고 한일 양국의 새로운 불교문화교류를 기원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조계사에서 열린 한일합동평화기원법회에는 일본측 스님과 신도뿐 아니라 조계사 주지 토진스님을 비롯한 한국 스님과 불자들도 자리를 같이했다. 오후2시와 오후3시 두 차례 진행된 합동법회엔 한국불교와 일본불교 의식을 선보였다. 조계사 주지 토진스님은 방문단을 환영하는 인사를 했고, 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스님은 33관음성지순례 행사의 경과와 취지에 대해 소개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33관음성지 순례사업은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개발된 새로운 문화체험 관광



일본 조동종 스님과 신도 등 600여명이 지난 26일 서울 조계사를 방문 ‘한일합동평화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상품”이라면서 “지난해만 1만2000여 명의 일본인이 참가해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알리는 성공적인 문화콘텐츠로 평가 받았다”고 밝혔다. 성지순례와 템플스테이를 경험한 일본인들의 호응이 높아 이번 달에만 600여명의 일본인들이 대구 동화사에서 템플라이프와 사찰순례를 체험했다.

일본 조동종 방한단은 강화 보문사와 경주 불국사 등 한국 33관음성지 사찰을 순례하는 등 한국불교문

화의 진수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일본 조동종은 임제종과 더불어 대표종단의 위상을 갖고 있다. 800년 전 가마라 시대 도원(道元)스님이 중국 남송 유학 시절의 인연으로 일본에 전해진 조동종은 12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지방 포교조직을 총괄하는 전국종무소장회 산하에 66개의 종무소와 1만5000개 사찰, 800만 명의 신도가 있는 종단으로 알려졌다.

원회에서 요구한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승려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서류보완이 완료될 경우 중앙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분한승인 처리와 함께 승적말소를 해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류보완자의 경우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을 제외한 행정조치는 유효된다. 이성수 기자 soollee@ibulgyo.com

분한신고 미필자 ‘승적말소 공고’

총무원은 2010년 정기 승려분한신고 미필자를 대상으로 ‘승적말소 공고’를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5일 “2010년 정기승려분한신고와 관련하여 승려법 제5조의2 및 승려

분한신고시행규정 제17조에 의거, 기간 내에 분한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승려(서류보완자 포함)에 대해 승적 말소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거주 스님들은 금년 말까지 서류제출을 유예한 경우에 한해 승적 말소 처리를 보류한다. 총무원은 이 공고문에서 “기간 내에 서류를 접수했으나, 중앙심사위

본·말사 주지인사				(10월25일 총무회의 결과)			
				원학스님 경산 삼화사	우진스님 광주광역시 광덕사	성원스님 인천 선원사	희일스님 전주 참좋은우리절
				보성스님 부산 용주사	우학스님 대구 대관음사	영원스님 보은 만세암	도일스님 고령 반룡사
				원석스님 고령 관음사	일호스님 대구 금강사	대법스님 경주 해동사	탄경스님 진해 대광사
				하동 용연사	하동 서운암	거제 세진암	반산스님 양산 원각사
				의성 모선암	양평 사나사	거제 세진암	양산 원각사

한국불교 최대최고 전법도량
호국불교정신 교육도량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요람인 육군훈련소는 정신교육과 군포교의 중요한 거점입니다. 현재 1,500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비좁고 열악한 시설로 법회 및 수계식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밖에서 서성이다가 몇 천 명이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5,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형 법당을 지어서 여법한 법회 및 수계식으로 연간 5만~10만 이상의 신심돈독한 젊은불자를 양성하여 사회에 배출하고자 합니다. 큰 마음 내서 이 대작불사에 동참하시어 무한공덕 쌓으시고 이 땅에 불국토 건설을 실현합시다. 육군훈련소 신축 불사는 우리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호국연무사 신축불사에 사부대중의 힘을 모아주시십시오!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조감도.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불사 착공식

■ 일 시 _ 2010년 11월 19일(금) 오후 3시

■ 장 소 _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충남 논산 소재) 신축불사 현장

※ ‘제42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와 병행하는 불사 착공식에 부디 참석하시어 역사적인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증명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자승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추진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군종교구장자광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추진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의정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건축위원장

구자선·박정이·전인구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83호 국방부 원광사 內 조계종 군종교구

불사문의·안내 ☎ (02)797-7266, 749-8646, 軍 (02)900-7751 홈페이지 : www.gunindra.com